

덴마크 DANMARK



덴마크,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탄생(사회민주당 메테 프레데릭센 대표)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덴마크에서 치러진 지난 6월 5일 총선 결과, 덴마크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이자 역사상 최연소 총리가 탄생했다. 전체 179석 중 절반이 넘는 91석을 중도 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차지했는데, 사회민주당은 타 진보정당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단독 소수정부를 출범하기로 했으며, 올해 41세인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사회민주당 대표가 총리직에 오르게 되었다. 프레데릭센은 24세에 정계에 입문해 최근 사회민주당내 대표직을 맡고 있었으며, 두 자녀를 둔 엄마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헬레 토르닝 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가 덴마크 역사상 첫 여성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내각은 여러모로 이목을 끄는 데, 그 중 하나는 바로 젊은 정부라는 것이다. 내각 주요 보직자들의 평균 연령은 41.8세로, 가장 나이가 많은 장관이 55세이고, 비즈니스정책 담당 장관은 33세로 가장 나이가 적다.

덴마크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깊으나, 아직 덴마크 의회 내 여성대표성은 유럽과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다. 20여명의 내각 주요 보직 중 임명된 여성은 7명이었으며, 의회 179석 중 여성의원은 70명 정도로 39.1%이다. 일각에서는 북유럽(Nordic) 국가들 중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이 40퍼센트를 넘긴 적이 없는 국가는 덴마크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코펜하겐포스트(Copenhagen Post)의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는 과거 1998년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이 37.4%로 세계 2위까지 차지한 적 있지만, 이후 계속 감소했고 현재는 25위 정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번 사회민주당 단독 소수정부 구성안에 합의했던 세 진보정당 중 한 곳인 사회인민당(Socialist People's Party)의 피아 올슨(Pia Olsen) 대표는 그녀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총리가 여성인건 긍정적이지만 새 정부 내 여성 비율이 35% 밖에 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이라며 성별 불균형에 대한 실망감을 언급했다.

참고자료

- BBC (2019.6.27.),
“Danish PM Frederiksen takes power and joins Nordic swing to left”,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8784508>
(검색일: 2019.7.7.)
- Copenhagen Post (2019.6.7.),
“Election Fallout Round-Up: 70 women in Parliament, but Denmark still behind in Nordics”,
<http://cphpost.dk/news/election-fallout-round-up-70-women-in-parliament-but-denmark-still-behind-in-nordics.html>
(검색일: 2019.7.7.)
- Reuters (2019.6.26.),
“Denmark becomes third Nordic country to form leftist government this year”,
<https://www.reuters.com/article/us-denmark-election/denmark-becomes-third-nordic-country-to-form-leftist-government-this-year-idUSKCN1TQ30V>
(검색일: 2019.7.7.)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프레데릭센은 단독 소수 정부 구성 계획을 여왕 마르그레테 2세(Margrethe II)에게 제출했으며, 6월 말 여왕은 이를 공식 승인했다. 앞으로 새로운 여성 총리가 이끄는 덴마크 정부에서 덴마크 사회에 남아있는 여러 양성평등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 하다.

- The Local (2019.6.27.), "Denmark's youthful new government has almost twice as many male ministers as female", <https://www.thelocal.dk/20190627/denmarks-youthful-new-government-has-almost-twice-as-many-male-ministers-as-female>
- Time (2019.6.26.), "Denmark's New Prime Minister Is the Youngest Ever After Left-Wing Parties Form Government", <https://time.com/5614555/ette-frederiksen-denmark-youngest-prime-minister/> (검색일: 2019.7.7.)

스웨덴 SWEDEN



스웨덴 양성평등청, 알메달렌(Almedalen) 성평등 정책 세미나 개최로 주요 성평등 관련 시민의견 수렴

홍희정 울산라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스웨덴 양성평등청은 2019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고틀란드 섬에서 열리는 알메달렌 축제 기간 중 3일 간^(7.1~3) 성평등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알메달렌 축제는 스웨덴의 독특한 정치토론회를 지칭하는 행사로 1968년 스웨덴 전 총리 올로프 팔메(Olof Palme)가 휴양차 방문한 고틀란드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는 연설을 한데서 출발하였다. 이 연설 이후 스웨덴의 여러 정당 당수들은 다함께 모여 국가의 중요 의제 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정당뿐 아니라 정부기관, 언론인,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장으로 발전하였다(신혜리·홍희정, 2018).

이번 알메달렌에서 양성평등청이 발표·토론할 주요 의제는 총 7가지로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자 향후 양성평등청이 이끌어갈 주요 사업이기도 하다. 7가지 주제는 첫째, 아동의 성적 착취 및 인신매매, 둘째, 여성 할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셋째, 장애 여성의 경제적 평등 넷째, 젊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보 방안, 다섯째,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명예 폭력 방지, 여섯째, 기후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일곱째, 양성평등 사업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날인 7월 1일에는 아동의 성적 착취 및 인신매매에 대한 주제에 대해 다룬다. 양성평등청은 아동의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다. 양성평등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관의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인신매매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들을 구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최근 아동의 성적 착취, 인신매매, 구걸 등에 대해 새롭게 추진될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신혜리·홍희정 (2018), 스웨덴 알메달렌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한 지역축제 성공방안 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 pp.258-267
- 알메달렌 축제 홈페이지 2019년 프로그램 <http://www.almedalsveckan.info> (검색일: 2019.7.7.)
- Jämställdhetsmyndigheten(2019.6.29.), "Välkommen till Jämställdhetstorget i Almedalen", <https://www.jamstallldhetsmyndigheten.se/nyhet/valkommen-till-jamstallldhetstorget-i-almedalen> (검색일: 2019.7.7.)

7월 2일에는 여성 할례에 대한 예방 방안에 관하여 다룬다. 국립보건복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38,000여명의 여성들에게 할례가 진행되며, 이중 스웨덴에서는 약 7,000여명의 여아들이 할례를 당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82년부터 스웨덴에서는 여성 할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암암리에 이루어져, 이로 인해 많은 소녀들이 목숨을 잃거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양성평등청은 현재 추진 중인 할례 예방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한편, 여성 할례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한다.

마지막 날인 7월 3일에는 장애 여성의 경제적 평등, 젊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명예 폭력 방지, 기후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양성평등 사업에 힘을 모으기 위한 방안 등 5가지 주제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선 장애 여성의 경제적 평등 관련 세미나에서는 남성 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독립성이 낮은 장애 여성들의 경제적 불안성과 취약성을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 젊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관련 주제 세미나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 내 여성들의 정치 참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파악한 뒤 향후 젊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그리고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명예 폭력 방지 관련 세미나에서는 현재 스웨덴에서조차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고 진행 중인 캠페인인 “질투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Svartsjuka är romantiskt)”등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기후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미나에서는 성평등을 성공적인 기후 변화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사업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세미나에서는 앞서 알메달렌 축제 기간 동안 논의 했던 주제들을 다시 상기하며, 향후 성공적인 사업 실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